

창립기념사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손명세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3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년

올해는 건강보험 시행 38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 7월 1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15번째 창립기념일이었기도 합니다. 그간 심평원은 건강보험 38년의 역사(1977.1.13. 의료보험협의회~)를 만들어 온 주역이자,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를 발전시켜 보편적 의료보장과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심사와 평가를 담당해 오면서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대리해 의료비를 전략적으로 지출관리(Strategic Purchasing) 해 온 성과 덕분입니다. 아울러, 지난 38년간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은 내일 그리고 10년 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조직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며, 꿈과 비전이 없는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나이 듦의 미덕(The Virtues of Aging)에서 “꿈이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를 덮으면, 나이는 들지언정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 들어가지만, 지혜와 경륜이 쌓이고, 새로운 미래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와

소명이 있는 조직은 여전히 ‘젊은이’일 것이며, ‘청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심평원은 15번째 창립기념일을 맞아 ‘2025 뉴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의료이용자는 더 나은 품질의 의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의료공급자는 건실하게 성장하면서 더 건강한 의료를 만들어가는 상태
- **열어가는** 본질에 충실하게 새롭게 살피고, 시작하여 만들어 가는 것
-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의료 전반을 관리·개선하고,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수가·급여 기준 개발과 심사·평가·의료자원 관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IT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넓은 의미의 ‘평가’로 포괄하여 표현
 - ☞ 국가단위 국민의료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

또한, 앞으로 지향해 나갈 4대 핵심가치도 선정했습니다.

첫째로 국민 최우선 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며, 둘째로 소통과 협력을 하되, 셋째로 공정과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마지막으로 열린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엄중한 책무(Accountability)를 이행하고,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심평원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적 지출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원천적 힘은 바로 정보와 지혜, 그리고 글로벌 표준화일 것입니다.

심평원은 1.4 페타바이트(10의 15승 바이트)의 막대한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보는 단순한 양적 Information 보다는 질적 Intelligence를 지향하여, 새로운 가치와 글로벌 표준을 창출해 가야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심평원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 등 세계적 보건·경제 전문가들은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을 위해 세계 그 어느 나라, 그 어떤 기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지금 이 시대는 인류의 보편적 의료보장과 건강을 위해 심평원의 제

도와 시스템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pop과 드라마 등 문화 한류(韓流)에 이어, 최근 고급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민간영역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공공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거의 유일한 분야입니다. 세계보건·경제전문가 및 기구 등에서 심평원의 시스템이 저개발국가에도 이식될 수 있도록, 한국이 선도국으로서 리드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제도와 시스템은 의료한류에 기여하고, 인류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진국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메르스 사태'라는 '위기'를 맞아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은 사태 조기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전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도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집단지성의 중요성, 의료현장과 유기적인 소통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안전한 의료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심평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조성과 의료시스템 혁신을 위해 담당할 몫을 주도적으로 발굴·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심평원이 미래를 꿈꾸고 큰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해가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저는 '사람중심',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기조로, '직원이 행복한 회사,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 저희 심평원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다짐합니다.

심평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가내에 건강과 행복,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